

시

박은영

그대에게 가는 길 - 차를 달이는 동안 -

때로는 한 줄의 자연이
마주 보는 자리에
한 잔의 찻잔처럼 놓이면
그대 은은한 향기 곁에
낮달 같은 얼굴 되어 차오르고
세상 멀리 달빛처럼 흘러가네

꽃을 올린 나의 행복한 꽃대 위
바람꽃으로 서리서리 빛은 차향을 두고
이 생명 다하도록 그대 바라보네

우리 서로가 서로를 우려내면
서로의 빛깔이 만나
한 잔의 온기로도 우주에 닿던 것을
두 눈 감고 나누리라

하늘 호수 헤엄치는 피라미처럼
가도 가도 닿을 수 없던 그대여
더더욱 그리운 해 질 녘에
자꾸만 노을 번지듯
하늘 닿는 수평선을 달려서
저 향기 가득한 보름달을 띄울까

약력

▲(사)동행문학지교 나눔공동체 대표

▲YWCA 시와 낭송 지도 강사

▲교육원 시민 강사



동시

안영옥

이름이 많아요

나는 잎일 뿐인데
이름이 많아요

할머니가 부를 때는
이파리

아빠가 부를 때는
잎사귀

엄마가 부를 때는
잎새

부르는 이름은 달라도
모두 잎

나는 변하지 않아요.

약력

▲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

▲우송문학상, 광일문학상, 광주문학상, 광주전남아동문학상 수상

▲단편집 '독독독 동화가 놀러왔어요' 외 1권

▲장편 '실 마법사 할머니'

▲가사동화집 '노루집에 모인 동물들'

▲그림동화 '내 친구는 어디에?' 외 1권



시

이수희

몇 잠

마로니에 나무 아래서는 깜짝할 사이 돌아볼진대
기억의 꼬리 물고 그 언덕 내려간다 물가의 잔물결 이루어 애잔하
다 잠시 비몽 같던 것이지만
몽클 피어나는 오롯한 지대치다
짧다는 것 더 각인 되는 것이라면 먼 데서 오신 여행자가 아닐 것
이다 들르고 들렀던 몇 날의 정거장
퇴근길 친구 집 같은 자꾸만 닿아 있는 동문매반가*처럼 깊고 깊
은 몇 잠일까 그냥 갈피에 두며
이 아침 지스락 빗물 떨어지는 운을 때문이라고
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

*동문매반가 주막 : 다산 정약용이 1801년 강진에 유배 와서 처음 묵은 곳이다. 사
의재라고도 함.

약력

▲'시선' 등단

▲시집 : '하늘 눈', '봄은 지금 배달 중' 외 다수

▲수상 : 이동주문학상, 강진문학상, 우송문학상 외 다수

▲섬사량사인학교 편집위원, 영랑사인학교 지도강사

▲꽃이야기아카데미 대표



수필

수필

아쿠아 운동

우리 집 부근에 새로 지은, 구민을 위한 건
강 체육센터가 있다. 노래 교실, 요가, 헬스클
럽 등, 말만 들어도 구미에 당긴 종목들이지
만 난 아직 한가롭게 여가를 즐길 때가 아니
라고만 여기며 그쪽으로 고개 한 번 돌린 일
이 없다. 그러던 내가 며칠 전 본의 아니게 수
영반에 등록하게 된 것은 운동해야 건강이
따라 준다는 아이들의 권유를 거부할 수가
없었기 때문이다.

수영장에 처음 가는 날이다. 수영복을 입고
모자와 물안경을 착용하려니 쑥스러움이 앞
선다. 규모가 큰 수영장은 사람들의 몸동작
에 따라 출렁이며 파란 바다를 연상케 한다.
팔순 할머니도 수영복을 입은 걸 보니 긴장
된 마음이 조금은 풀린 듯하여 한 발짝 다가
서진다.

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간단하게 준비 운동
을 한 후 목까지 차오른 물속을 걷는다. 물속

에서는 다리를 비비 꼬든 허리를 뒤틀든 옆
으로 가든 뒷걸음질 치든 아주 자유롭다. 운
동하는 모습도 가지각색이어서 빨강 노랑 초
록색의 플라스틱으로 된 판을 양손에 쥐고
있드린 채 물장구를 치며 동동 떠가다가 하
면 선수처럼 이리저리 몸을 뒹굴 듯 물살을
헤쳐가며 빠르게 수영을 하는 이도 있다.

눈을 스르르 감은 채 가만가만 물속을 움
직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자못 사랑스럽다.
할머니의 그 미안한 듯한 눈빛이 내 마음속
에도 옮겨진 듯, 나도 그런 얼굴을 하고 조심
스럽게 걸어본다. 찜통더위에 시달리다가
시원한 물속에 몸을 식히니 쌓인 스트레스
가 단번에 '펑' 하고 날아 가버린 기분도 든
다.

현대의 우리는 문명의 이기로 몸은 편하게
되었지만 여러가지 스트레스 속에 묻혀 살아
가고 있다.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불안
과 긴장이 지속하여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
큰 병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.

주부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의
건강하면 나라가 밝아지게 되니 그래서 스트
레스를 이겨낼 만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문
화 센터를 통해 권장해 오지 않나 싶다. 예전
우리 어머니들은 빨래터에서나 다듬이를 하
며 마음속 고통을 이겨냈다고 한다. 요즘엔
힘든 일은 기계에 맡기고 한가한 시간을 이
용하여 본인의 입맛에 맞춰가며 취미 활동을
하기에 주부들은 늘 바쁘기만 하다.

“여러분! 안녕하세요?”

시간이 되었는지 수영복 차림의 날씬한 강
사 아가씨가 오색 스티로폼을 손수레에 가득
싣고 들어온다. 흥겨운 노랫가락이 풀장 안
을 뒤쫓더니 축제인 듯 마음이 먼저 들뜬다.

“자 여러분은 그대로 물속에서 저의 동작
을 따라 해보세요.”

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아쿠아로빅은 시작
되고 동작 하나라도 놓칠세라 안간힘을 쓰는
모습들은 흡사 청순한 어린아이들과 같다.
스티로폼을 손에 쥔 채 따라 하는 물속에서
의 움직임이 너무도 힘이 들지만, 헤엄치다
튀어 오르는 물고기처럼 금방이라도 날아오
를 듯한 기분에 체육센터에 오기를 참 잘했
다는 생각이 든다. 그리고 보니 몇 개월 간의
회원권을 사 수영장으로 들어민 딸아이가 고
매판다.

가느단 붓을 손에 쥐고 뒤로 넘기는가 하
면 앞으로 당겼다가 물속으로 집어넣기를 몇
번이고 반복하더니 이번엔 다리 사이에 끼고
자전거 타기를 하란다.

‘오마나, 내 이 무거운 몸이 물에 뜨네. 호호
그렇담 책 표지에 쓰인 물 위를 걷는 여자도
스티로폼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을까! 손과
발을 움직여 자전거를 타고 물속을 종횡무진
하니 웃음이 절로 터져 나오며 옛 어른들이
자주 쓰던 말대로 오늘은 나도 학을 탄 양주
목사다.

운동 시간 막바지에 이르렀는지 명상의 시
간이라 하여 붓을 목에 두르고 물 위에 누우
라며 조용한 음악을 보내준다. 모든 게 서를
기만 한 나는 몇 번이고 자백질하다가 간신
히 누워 흐르는 선율을 찾아본다. 세상에서
이보다 더 편안함이 없어 마음이 울컥해진

다. 취미생활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른 채 오
직 일만을 하다 가신 어머니의 등 굽은 모습
이 아프게 떠올랐기 때문이다.

“자, 누구 미운 사람 없나요? 속 썩이는 남
편, 말 안 듣는 자식들, 또 잔소리하는 시엄니
호호, 하하! 모두 일어나서 붓을 구부려 높이
들고 맑게 물을 쳐보세요. 하나, 두울, 세엿!
스트레스를 확 푸세요. 더 두드려요. 더 세게
요. 다섯, 아홉 열! 여러분 사랑해요!”

그렇게 아쿠아 운동이 끝나고 함박꽃처럼
웃는 모습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
가뿐하기만 하다.

약력

▲'수필과 비평' 등단(1997)

▲'오늘의 가사 문학' 신인상

▲전남문학상, 한국 여성문학상 수
상

▲한국문인협회, 광주문인협회 회원

▲수필집 : '윤이내네 집 이야기'



www.kjdaily.com



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

광주·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

지역의 품에서,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!!

시내
지국

지방
지사

- 중앙지국 222-8171
- 산수지국 224-4188
- 학운지국 673-6836
- 화정지국 372-9140
- 금호지국 376-7153
- 풍암지국 603-0311
- 노대지국 674-3581
- 상무지국 453-2554
- 광천지국 374-2120
- 진월지국 676-2726
- 봉선지국 673-6836
- 백운지국 673-0123
- 두암지국 266-1920
- 농성지국 362-4102
- 유동지국 222-8171
- 운암지국 529-3548
- 용봉지국 261-1503
- 신가지국 954-1420
- 양산지국 574-3745
- 하남지국 951-9954
- 운남지국 952-1687
- 오치지국 261-9461
- 문흥지국 261-9462
- 일곡지국 573-3200
- 첨단지국 971-7374
- 치명지국 371-9584
- 수완지국 955-0451
- 광산지사 944-0993
- 목포지사 061)270-8689
- 동문포지사 061)278-0740
- 남문포지사 061)245-3797
- 신안지사 061)980-8300
- 순천지사 061)746-1600
- 여수지사 061)651-6433
- 나주지사 061)335-0005
- 광양지사 061)793-6800
- 구례지사 061)782-4696
- 담양지사 061)383-5566
- 곡성지사 061)362-5746
- 고흥지사 061)832-6290
- 보성지사 061)852-6644
- 화순지사 061)373-7795
- 장흥지사 061)863-6800
- 강진지사 061)432-8899
- 해남지사 061)535-5849
- 영암지사 061)473-7151
- 무안지사 061)453-3645
- 함평지사 061)322-0882
- 영광지사 061)353-5133
- 장성지사 061)394-3636
- 완도지사 061)555-0134
- 진도지사 061)542-4330

▶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(구동1-21) ▶ 대표전화:062)650-2000 ▶ 구독문의:062)650-2022